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신다



### 사설

## 절세위인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은 빛나게 실현될것이다

백두산대국의 국력이 만방에  
파시된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  
공으로 민족적존엄과 긍지가 더  
없이 드높은 시기에 맞이하는 민  
족최대의 광명성절을 경축하는  
은 나라 인민의 경모의 마음  
속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이 드  
겁게 어려온다. 2월의 백두산에  
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을 체험  
하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  
의 한생은 오로지 민족의 자주권  
과 존엄을 지키고 빛내인 애국애  
족헌신의 성스러운 생애였다.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권을 잃은 나라와 민족은  
죽은것이냐 다름없다는것은 지난  
세기 외세의 지배하에 수난을 강  
요당했던 우리 민족의 망국사가  
남긴 피의 교훈이다.  
자주성을 확고히 고수해야  
민족의 존엄도 있고 광명한 미  
래와 번영이 담보된다는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개척하고 빛내  
이시고 김정일장군님께서 즐기  
게 이어오신 민족자주위업의 자랑스  
러운 력사와 현실이 보여주는 진

리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의 기치  
높이 건설하신 자주, 자립, 자위  
의 공화국을 더욱 강화하고 빛내  
이는것은 장군님께서 혁명령도의  
전기간 확고히 견지하신 령도원  
칙이고 정치신조였다.  
그이께서는 애국이란 말씀에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사랑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고  
하시며 언제나 자주의 대를 확고  
히 세우고 정치를 펴시었다.  
그이께서 선군정치를 전면적으  
로 펼치신것도 선군의 길이 나라  
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  
고 담보하는 원칙적이고 정의로  
운 애국의 길이였기때문이었다.  
군력이자 나라와 민족의 자주  
권이고 생존권이며 운명이고 존  
엄이다. 총대가 무더어 힘이 약  
하면 하고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며 종당에는  
남에게 놀라운 약자의 그 손으로  
눈물을 흘려야 한다. 우리 인민  
이 다시는 그전처럼 자주권과 존  
엄을 잃은 노예의 운명이 되는것  
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것이

장군님의 심중에 자리잡은 애국의  
신조이고 의지였다. 자주적대는  
정의이고 승리라고 하시며 드물지  
않은 자주의 신념으로 민족의 자  
주권과 근본리익을 결렬히 수호하  
신 장군님이시었다. 오늘날 공화  
국이 우주강국, 핵보유국의 지위  
에 오른것은 그이께서 민족민대의  
운명과 자주권수호를 위한 튼튼  
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신 거대한  
민족사적공적으로 된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이고 념원이었다. 조  
국도 하나, 민족도 하나라는것  
은 그의 절대불변의 의지였다.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자신의 숭고  
한 사명감으로, 민족지상의 과제  
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해 모  
든것을 다 바치셨다. 그이께서 외  
세에 의해 분열된 조국을 두고 그  
토록 심려하시며 조국통일을 위  
해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신  
것은 조국통일이 전민족의 자주  
권을 확립하는 절박한 중대사이  
기때문이었다.  
민족분열의 비극의 력사, 치욕

의 력사를 기어이 끝장낼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을 위  
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  
신 장군님께서 한없이 넓은 도  
량과 포용력, 대용단으로 6.15공  
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  
언을 마련하시어 우리 민족끼  
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6.15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  
으셨다.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민족  
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내이시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  
으신 그이께서는 절세의 애국가,  
민족의 어버이로 겨레의 다함  
없이 존경과 신뢰를 받으셨다.  
그이께서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  
인사들, 동포들로부터 받으신 수  
많은 선물들에는 장군님에 대한  
겨레의 절절한 흥모와 칭송의 마  
음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6.15공  
동선언실천 해외추위위원회 유럽지  
역위원회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  
께서는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  
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선언  
이 채택되도록 하심으로써 통일  
국가건설의 전망을 열어놓으셨다

고 한것은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칭송의 한 표  
시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자  
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  
은 경애하는 김정일수령님에 의  
해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장군님  
의 뜻과 유훈대로 민족의 자주권  
과 존엄을 수호하며 강성국가  
를 건설하고 통일성업을 실현  
하는것은 원수님의 확고한 결  
심이고 의지이다. 인공지구위  
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인 발사도 우주정복을 위한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주적권리  
의 행사이며 최근에 있는 제3차  
지하핵시험도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  
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  
제적대응조치의 일환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우주  
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  
로 더욱 용기백배하여 전진함으  
로써 이 땅위에 통일된 강성국  
가를 안아오시려던 장군님의 념  
원을 반드시 빛나는 현실로 꽃피  
울것이다.



# 길에 쌓아올린 신 업적 영원불멸하리라

## 불변의 통일의지를 지니시고

갑피도 새로운 주제89(2000)년 6월 나라가 갈라져 55년만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우리 민족끼리 기본책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역사적 전환을 이룩한 일대 민족사적사건이었다.

당시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두고 7천만 온 겨레는 폭풍같은 환성을 터쳐올렸다.

《화창한 날씨속에 빨간 주단이 깔려있는 평양비행장의 모습과 함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TV를 지켜보던 모든이들은 전율을 느껴야 했다. 두 수뇌부의 역사적인 만남은 수십년을 기다려왔던 감격의 최절정이었다.》

《나는 마치 고압전류에 순간적으로 감전된 듯 기분 좋았다. 갑자기 머리속이 하얗게 지워지는 것 같았다. 멎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아마 이때의 충격은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다.》

우리 겨레에게 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조국통일을 필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대담단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심이다.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평양상봉의 날 남측대통령일행을 따뵛이 맞아주시고 그들이 체류하는 전기간 친리해안의 예지와 넓은 포용력, 숭고한 도덕과 해박한 식견으로 그들과 여러차례 격식없는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민족적화해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측성원들과 진행하신 불변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마침내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이 탄생하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민족중재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속망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북남삼천리에 민족공조의 대하, 자주통일의 새봄을 불러왔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진민주적인 리념으로 되고 불신과 대결로 얼룩졌던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었다. 60여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공화국의 품에 안기고 끊어졌던 북남사이의 철도와 도로가 이어졌으며 북과 남이 국제체육경기대회 개막식에 공동입장하여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열기를 크게 고조시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필생의 신군정리로 6.15공동선언리행에 유리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해주시고 공동선언리행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는 내의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서버리시었다. 뿐만 아니라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회담이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진행되고 협력과 교류도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대로 지향되게 하시었으며 한없이 뜨거운 동포애로 평양을 찾아오는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과 해외동포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일애국의 길로 따뵛이 손

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 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해 주제 96(2007)년 10월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또다시 마련되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 발표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의 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던 주제 97(2008)년 9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제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라는데 대하여 뚜렷이 천명하시었다.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긴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든든한 밑천이다.

민족번영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시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즐기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이고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그 계를 힘있게 불어넣으시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실 굳은 의지를 천명하시이고 통

일운동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시었다.

원수님께서는 올해의 뜻깊은 신년사에서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통일부문을앞에 나서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었다.

준공을 앞둔 민족공원을 돌아보시며 불멸의 상징인 판문점도 꾸러 놓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할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그이께서는 지난해에 력사의 땅 판문점도 찾으면서 반통일호전세력의 전성광기를 꺾어놓으시고 통일을 바라는 겨레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지난해 8월 전쟁위협이 질게 드리운 서남전선 최남단 최대열전지역의 섬머대들을 시찰하시면서 적들이 감히 서론 불질을 한다면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섬멸적반타격을 가하여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갈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우리 겨레는 이 땅의 평화와 겨레의 안녕을 지켜주시고 자주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가시는 절세위인, 민족의 어머니의 모습을 되찾고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굳게 확신하시었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유훈을 받드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어 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야 말것이다.

### 조국통일성업에 바치신 헌신의 로고

봄빛이 완연한 내 조국땅에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 평명성절이 왔다.

이날을 맞을 때면 우리 인민, 우리 겨레는 민족사와 인류사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남기신 절세의 애국자에 대한 추억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곤 한다.

김정일! 이 위대한 존함과 더불어 그이의 존안을 우리를 때면 한평생 인민을 위해 주실수 있는것은 다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순간의 휴식도 허용하지 않으셨던 불멸의 그 영상이 눈물겹게 안겨온다.

김정일! 이 불멸의 존함과 더불어 그이의 거룩하신 자욱자욱을 더듬을 때면 조국통일을 필생의 위업으로 삼으시고 그 실현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러 바쳐오신 헌신의 로고가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분렬의 아픔을 두고 잠 못 이루시는 어머니수령님의 일찍부터 조국통일의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었다.

자신께서는 불멸의 장벽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지 영원한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하나의 조선, 한이불어라해서 참된 삶을 함께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겨레의 모습만이 언제나 그의 심중에 자리잡고있었다. 지구를 뗏뿔바퀴 돌고도 남을 현지지도의 길을 위업이 걸으시면서 조국의 남해가에는 가보지 못한 수령님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불멸된 조국의 하루하루가 흘러가는것이 정말 가슴아프다고 마음속피로움을 터치시던 장군님이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언제인가 외국의 한 언론인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어떤 취미를 가지고계시는가고 질문을 드렸을 때 털어놓고말해서 자신에게는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다고, 위대한 수령 김정일성토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땅에 사회주의강대국을 건설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시간을 랑비할수 없는것이 우리의 현실

이라고 절절한 심증을 터놓으시기도 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로 그렇게 한평생을 바쳐오시었다. 위대한 애국헌신의 열기로 온몸을 불태우시며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번영을 위한 로고의 낮과 밤을 이어오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린 수령님의 사상리론적업적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하시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해주시었다. 여기에는 어머니수령님의 조국통일위업을 100% 계승하여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시려는 그이의 철의 의지가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시하신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조국통일사상과 방침들, 그이의 지철철 모르는 정열과 불굴의 기상, 불타는 애국의지와 탁월한 령도는 미국의 끈질긴 민족분열영구화책동과 반공화국압박동속에서도 조국통일운동이 자주의 케도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올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안개 자욱한 이른새벽 판문점을 찾으신 그날에도 장군님께서 어머니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조국통일문건에 남긴 친필이 그대로 새겨져있는 비밀에서 오래동안 걸음을 멈추시고 수령님의 한평생 통일을 위한 헌신이었다고 하시며 이 력사적인 친필에는 수령님의 강毅한 통일의지와 신념이 함축되어있고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수령님의 뜻대로 불멸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려는것이 자신의 결심이고 확고한 의지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 오늘날도 겨레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성업을 위하여 걸으신 그 길은 절세의 애국자, 민족운명의 위대한 수호자의 끊임없는 헌신과 로고의 길이였다.

본사기자 한영수

## 통 일 애 국 의 길 에 서

### 중단되지 않은 범민족대회

은 겨레가 어머니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으로 하여 파눈물의 바다에 잠겨있던 주제 83(1994)년 8월 5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해 7월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국상을 당하게 되자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북측본부와 관계부문의 일꾼들은 이런 때 어떻게 범민족대회와 같은 행사를 벌려놓겠는가 하면서 8.15범민족대회를 그만두는것이 마땅한 도리로 되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료해하신 장군님께서 이날 해당 부문의 책임일꾼에게 이밖에 진행하는 8.15범민족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처음으

로 진행하는 범민족대회인것만큼 수령님의 생전의 뜻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의 사상을 받들어 특색있게 크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에 따라 범민련 북측본부 성원들은 제5차 범민족대회준비를 적극 다그쳤다.

그러하여 8월 13일 평양에서는 겨레의 통일의지를 과시하며 모이며 1만 5 000여명의 대회참가자들과

평양시민들이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할것을 다짐하는 통일실천결의집회를 진행하는것으로써 제 5차 범민족대회의 막을 성대히 올렸다.

괴는물속에서도 중단없이 진행된 제5차 범민족대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대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7천만겨레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고 온 강토에 통일열기를 더욱 북돋아준 력사적계기로 되었다.

그의 사랑을 두고 누구보다 비통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유가족들에게 친히 조전도 보내주시고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잘 준비하여 조의대표단이 직접 서울에 가지고 나가도록 하시었다.

하여 3월 24일 낮 12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화환이 하늘길을 날아 서울의 청운동 5의 령전에 정중히 놓여지게 되었다.

세상에는 백만장자, 억만장자로 불리운 대부호들의 장의식과 관련된 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정주영 명예회장의 장의식처럼 위인의 사랑과 은정속에 전민족적인 장의로 된 례는 일찌기 없었다고 볼수 있다.

정주영명예회장의 령전에 놓여진 조의화환, 그것은 단순한 꽃의 묶음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사상과 리념, 정결과 신앙이 다르다고 해도 통일에국의 길에서 한번 손을 맞잡은 사람과는 끝까지 정을 나누시고 의리를 지키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인간애, 민족애의 세계가 그대로 어려있었다.

### 평화와 통일의 리정표를 수놓으신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진보적단체들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길에 자신의 한생을 다 바치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칭송하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는 《국방위원장께서는 김정일성주석님께서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애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3대현장을 빛내이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6.15공동선언시대를 활짝 열어놓으시어 겨레애에 크나큰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토로하였다.

국방위원장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번영을 약속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하시어 우리 민족분렬의 금자탑을 쌓았다. 《한반도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장을 마련하시었다.》

6.15. 10.4선언정신 계승과 리행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번영이 이루어진 어느 가까운 후날, 우리의 후손들은 온 겨레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치는 삼천리금수강산에서, 통일이 휘날리는 백두와 한나에서 그분을 추억하며 이야기할것이다.》고 격경의 목소리를 터치었다.

본사기자



6.15공동선언발표 7돛기념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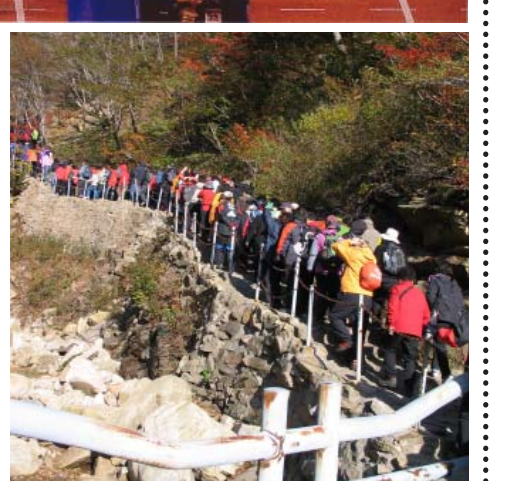
↑ 북, 남, 해외작가를 백두산정에서 《통일문학의 새벽》 모임 진행 →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공동입장하는 북과 남의 체육인들



↑ 통일을 펼쳐들고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남조선인민들 ← 신념과 의지의 강지들인 비전향장기수들 귀환



↑ 6.15통일시대를 빛내어나갈것을 호소하는 남조선대학생들 → 금강산관광을 하는 남조선인민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과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데 대하여》를 채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주제102(2013)년 2월 11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결정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결정서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새로운 주제100년대를 빛내어나가는 올해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화국창건 65돐과 전승 60돐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건국업적과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는 중대한 력사적계기이며 자주적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한길로 도도히 전진해나가는 백두산대국의 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떨치는 대정치축전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창건하시고 탁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령도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와 반제반미대결전의 령승을 안아오셨으며 우리 공화국을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부강하며 선군으로 위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어 우리 조국과 인민의 영광스러운 오늘과 무궁변영할 천만년미래를 펼쳐놓으셨다.

세기를 두고 사대와 망국을 속명으로 감수하던 수난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민족자주와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업적을 만년재보로 하여 이 땅위에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지상라원을 건설하며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려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철석같은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로 즐기치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올해의 뜻깊은 명절들을 성대히 경축하는것은 청소한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낸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빛내이고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뚜렷이 시위하며 대결과 전쟁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추종세력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는 또 하나의 위력한 정치군사적, 정신도덕적승리로 될것이다.

우리는 당의 두리에 천천만경으로 뭉친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역세에 나아가는 위대한 인민의 정의로운 힘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계속하여 결정서는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첫 신년사와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주를 정복한 기세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다시한번 천리마조선, 영웅적인민의 기상과 본패를 과시할 필승의 심심과 투지에

넘쳐있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대책적내용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결정서는 첫째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더욱 심화시켜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둘째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을 경축하는 정치행사를 성대하고 의의있게 조직진행할데 대하여, 셋째로,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백승의 전통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결정서는 넷째로,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자랑찬 승리로 단호히 짓부셔버릴데 대하여, 다섯째로,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강도높은 전면대결전을 벌리며 공화국창건 65돐과 전승 60돐을 국

방력강화의 새로운 성과로 빛내일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결정서는 여섯째로, 사회주의문명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데 대하여, 일곱째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필승의 념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결정서는 여덟째로,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업기풍, 일본세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아홉째로,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그 청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함으로써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결정서는 열째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법적, 행정실무적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최대의 명절,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이한 온 겨레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찬송하며 뜨거운 감사와 헌성을 그리움에 젖어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인담대한 기상과 배짱, 백절불굴의 의지와 천변만화한 지략을 생각할때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이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백두산을 민족의 존엄으로, 조국의 기상으로 여겨왔으며 슬기롭고 용감하고 깨끗한 민족의 넓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 태방한 문

이였으며 일제를 쳐물리치고 빼앗긴 나라를 기어이 다시 찾아야 한다는 민족자주정신이 있었다.

김정일장군님의 탄생도 비범한것이였지만 그이께서 한평생 쌓으신 업적 또한 전무후무한것이다.

업적이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고난을 극복하고 강적과 싸워이기는 백두산정신은 장군님의 사상정신적지주라는 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김정일동지는 고난을 웃음으로 이기는 백두의 령장이다, 장군의 위업은 고난극

하고 조국과 인민앞에 엄혹한 시련이 겹쌓였던 고난의 행군시기 장군님께서선 선군의 총대를 역세에 틀어잡으시고 백두산정신으로 조국과 민족을 수호하시어 민족사에 길이 남을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셨다.

그 나날 장군님께서선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우리는 장군을 휘두르고 원수들이 총대를 내대면 원수는 대포를 내뿜었다고 하시며 백두산총대를 더 높이 추켜드셨고 끊임없는 선군길을 가고 또 가시었다.

시는 그이께 인민들이 더는 그런 길을 걷지 마시라고 만류할 때마다 내가 가시칠조망을 친 전연에까지 간다고 인민들이 가슴아파 하지만 전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보다 더 험하고 위험한 곳에도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순간의 휴식과 지체함도 없이 전선에서 또다시 전진으로 떠나시던 장군님이시였다.

백두산정군의 그 예지, 그 기상, 그 배짱, 그 담력으로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천만리가 있어 오늘 공화국은 그 어

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세인이 주목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시였다고 하면서 벗이든 적수든 다 이러한 업적을 무시할수 없는것이라고 했다.

민족의 영웅적기상과 슬기를 자랑하며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은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한평생 애국애족의 리념을 안으시고 민족수호의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백두산정군의 위인, 백두산정군이시다.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장군님께서 한평생 짊어가신 생의 자욱자욱은 조선의 넘으로, 민족의 기상으로 길이 빛날것이며 민족의 성산과 더불어 위대한 그 존엄은 어찌

도 오늘도 래일도 후손한테 높이 칭송될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는데 또 한분의 백두산형의 장군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2월의 봄은 영원하다.

은 겨레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을 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령도자로 모신 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절감하고있으며 강성변영할 민족의 레일을 굳게 확신하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 백두산밀영결의대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한 백두산밀영결의대회가 12일 에 진행되었다.

대회장인 백두산밀영은 백두의 정기를 지니시고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정으로 열렬히 고백하였다.

대회에서는 결의연설들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비서는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정일대원수님께 최대의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장구한 기간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필승불패의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주제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를 다져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을 높이 들고 세기를 이

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며 이 땅위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겠다는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강요되는 조선인민군 장병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우주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굳게 믿고따르며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옹위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백두산장군들의 슬하에서 자라난 혁명강군의 불패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주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래양기와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높이 휘날리겠다는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펼치시어 우리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들을 대부대로 역세에 키워주시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본사기자

## 백두산장군을 모시여

복과정에 돌보이게 된다, 고난을 이기는 장군이여야 진자 장군이다, 김정일동지는 고난이 클수록 높은 사명감을 백배로 가다듬고 강적과 싸워이길 멸적의 보검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아간다고 하시었다.

일찌기 령활한 지략과 비범한 예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지난 세기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의 반미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장군님께서선 1993년 3월 미국이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왔을 때에도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시어 적대세력의 반공화국 암살책동을 단호히 분쇄해 버리셨다.

우리 민족이 대국상을 당

고난을 웃음으로 이기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는 백두산장군이 아니고서는 결코 넘으실수 없는 사신의 천만고비들이였으며 험난한 전선길에 있었다.

그 길에는 전사들을 찾아가는 나의 길은 그 어떤 풍랑도 막지 못할것이라고 하시며 길길이 솟구치는 파도를 맞받아 자그마한 패속정에 몸을 실으시였던 초도의 배길도 있었고 이곳만은 가실수 없다고 막아서는 전사들에게 정 이리만 나는 포차로라도 끌고 올라가겠다고 하시며 야전차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오르셨던 오성산의 첩벽망월도 있었다. 수수한 야전복차림으로 위험천만한 전선길을 이어가

면 외세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올라섰수 있었다. 하기에 로씨야과학원 극동연구소 소장은 《조선은 지금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에 당당하게 맞서고있는 데 이것은 김정일령도자의 강인성과 무비의 담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했다.

외국의 한 신문은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후 《김정일장군이 어떻게 되어 세계의 존경을 받는가》라는 글에서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서거후 확고한 결심과 굳센 의지로 조선인민을 령도하여 외세의 위협과 압박을 반대하고 국내의 자연재해를 이겨냈으며 조선특색의 사회

제 17차 김정일화축전 개막

축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 수만상의 김정일화들로 축전장은 황홀경을 이루고있었다.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김창도 조선김일성화 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

민이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으로 사회주의조선의 국력을 또다시 만방에 과시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는 시기에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제17차 김정일화축전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번 축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지향과 충정에 떠받들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안겨주시 혁명의 해물봉을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의 자랑을 떨치며 강성국가건설에서 승리의 자욱을 새겨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천출위인에 대한 고결한 충정이 맥박치는 연설들은 전체 참가자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찬란한 레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갈 혁명적의지로 가슴불타게 하였다.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천만군민의 전투적기상과 열의이런듯 백두산밀영성공에 경축의 축포가 장쾌하게 터져올랐다.

백두광명성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에서 뜻깊은 결의대회를 가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참가자들은 우렁찬 《만세!》의 합성을 띠었다.

백두산밀영결의대회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가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이하며 제17차 김정일화축전이 14일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축전장인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에는 《제17차 김정일화축전》, 《광명성절경축》이라는 글씨와 축전마크가 세워졌으며 공화국기와 축전기발들이 게양되어있었다.

불멸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에는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이 모셔져있었다.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축전장에 차넘치고있었다.

축전장에는 무력,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많은 단원들과 인민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피은 불멸의 꽃들이 전시되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해외동포들 그리고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외국의 친선 및 령대성단체들, 인사들, 화교들이 태양의 꽃들을 축전장에 내놓았다.

위대한 선군태양을 우러러 따르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충정에 떠받들려 태년에 없는 강추위



축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 수만상의 김정일화들로 축전장은 황홀경을 이루고있었다.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김창도 조선김일성화 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



민이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으로 사회주의조선의 국력을 또다시 만방에 과시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는 시기에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제17차 김정일화축전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번 축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지향과 충정에 떠받들려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자주적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한길로 도도히 전진해나가는 백두산대국의 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떨치는 대정치축전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백두산을 민족의 존엄으로, 조국의 기상으로 여겨왔으며 슬기롭고 용감하고 깨끗한 민족의 넓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

업적이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고난을 극복하고 강적과 싸워이기는 백두산정신은 장군님의 사상정신적지주라는 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김정일동지는 고난을 웃음으로 이기는 백두의 령장이다, 장군의 위업은 고난극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자주적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한길로 도도히 전진해나가는 백두산대국의 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떨치는 대정치축전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백두산을 민족의 존엄으로, 조국의 기상으로 여겨왔으며 슬기롭고 용감하고 깨끗한 민족의 넓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

업적이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고난을 극복하고 강적과 싸워이기는 백두산정신은 장군님의 사상정신적지주라는 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김정일동지는 고난을 웃음으로 이기는 백두의 령장이다, 장군의 위업은 고난극





#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주제102(2013)년 2월 12일 북부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핵시험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위성발사권리를 탄탄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원자탄의 작용특성들과 폭발위력 등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되었다.

이번 핵시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조선반도와 지역

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될것이다.

주제 102 (2013)년 2월 12일

평양

## 정론시

# 백두산 불의 선언

### 오 선 학

지구상에 역풍이 불어  
정의가 모독당하는 이 시각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도전앞에  
내 분노의 불을 높이 드노라

시대의 키를 잡으신 거인의 발걸음  
으로  
협의회에 나오시였거니

정의로 강하고  
사랑으로 강한  
백두산의 불

중요결론을 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그 모습

하는  
미국에 경고하거나  
이번에 올린 선군조선의 선언을  
다시금 똑똑히 뇌리에 새겨넣으라

끊임없이 더 많이 날아오르리라  
선군조선의 끝없는 국력을  
은 세상이 놀라도록 만방에 떨치  
리라

수만도의 불이 되지 않고서는  
순간도 참을수 없는 이 가슴  
서슬푸른 총창을 비껴들지 않고  
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시도 달랠수  
없기에  
선군조선을 압살하려는 극악한  
원수들에게  
백두산불을 터치노라

때로는 미국과 추종세력의 도전을  
호탕한 웃음으로 날려보내시는가  
때로는 정의에 도전하는  
지구의 종쳐 미국의 발악을  
경멸의 눈초리로 시궁창에 물어버리  
시는가

그 불에는  
룡라도의 멧쟁이유원지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창전거리의 창가에 넘치는 기쁨이  
있고  
모란봉악단무대에 울리는  
그 아름다운 노래와 행복이 있노라

백두령장의 선언으로  
천하를 격동시키는  
그 보도는 짧고  
그 전과는 길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아노라  
그 보도의 폭과 깊이를  
그 보도의 무게를  
그 보도의 열도를  
그 중대보도에 담겨진 선군조선의  
결심을

-우리가 진행하는 장거리로켓트  
발사도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철천지원수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감히 원수들이 이 땅우에  
무모한 화염을 터뜨린다면  
보복의 순간을 놓침이 없이  
우리 식 불의 노호  
백두산의 불맛을 보여주리라

1  
우주정복의 별로  
은 누리를 격동시킨  
주체의 우리 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을  
두고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던가

백두의 기상을 안으시고  
세계지도앞에 서신  
선군조선의 태양 김정원수님  
그이의 근엄하신 눈가에 어린  
전면대결전의 단호한 선택이여  
강도높은 중대조치의 결심을 굳히신  
백두산위인의 심장에서 라오르는  
아, 백두산의 불이여!

정녕 그 불속에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의 높은 존엄이 있고  
내 조국의 끝없는 부강이 있노라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역풍이 이는 세계를 맞받아  
승리한 레일의 환호를 그려보시며  
천만대오의 생세를 다지시는  
천하제일장군의 거룩하신 영상이여

대답해보라 세계여  
핵을 먼저 만든자 누구냐  
제일 많은 핵을 자랑하는자 누구냐  
인류의 머리에 핵참화를 들씌운  
자 누구냐  
남조선에 핵을 끌어들이자 누구냐

백두산불맛  
그것은, 그것은  
지구의 그 어느곳에 도사리든  
행성의 그 어느 경도와 위도에  
있든  
어느 대륙의 외진 골짜기  
지하의 그 어느 깊이에 숨어있든  
모조리 찾아내어 징벌하는 불

그리 크지 않은 나라에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만리대공에 실용위성을 쏘올린것은  
21세기의 기적이라고  
평화적인 우주개발전략의 패승이  
라고

멸적과 필승의 결단을 내리시는  
천하무적의 장군을 우리러  
인민은 한마음 일편단심으로 받들  
거니  
원수님을 승리의 진두에 모신  
천만군민의 심장에도  
활활 불이 이는가

있노라 고난의 년대를 이겨온  
우리의 자랑찬 추억과 승리의  
자부가  
누구보다 잘사는 락원의 강산에서  
만복을 길이 누릴 우리의 미래가

최고사령부의 작전도앞에서 울리신  
우리 원수님의 강철의 음성  
그 명령을 받아안은  
우리 군민의 의지  
총이 되고 포탄이 되어  
천만의 군단으로 일떠섰노라

세계제패의 망상에 사로잡혀  
조국의 안녕을 지켜 만든  
자위의 핵억제력을 없애보려 날뛰는  
핵미치광이 미제원수

피할 겨를도 없이  
숨돌릴 틈도 없이  
숨을 곳도 없이  
막아볼 경황도 없이  
무자비하게 들부시는 불소나기

우주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경사중의 대경사로  
조선의 존엄 세계 최상의 높이로  
올라선  
자랑중의 최대자랑으로  
정의에 살고 량심에 사는 순결한  
인간들  
얼마나 뜨거운 찬란의 메아리를  
터쳤더냐

아, 백두산의 불!  
압제의 장설을 예국의 열로 녹이고  
숨겨가는 겨레의 언 가슴을 덥혀  
재생의 피로 뚫게 한 불  
세월의 칼바람이 휘몰아칠수록  
세차게 더 세차게 타오른 불

진정 그 불속엔  
허리띠를 조이며 살아온 시절을  
영원한 옛말로 전하는  
사회주의부귀영화가 있노라  
으뜸가는 천하제일강국의 용자가  
비겨있노라  
통일강성국가의 환호성이 터져오르  
노라

최고사령관동지 친히 수표하신  
최후승리의 작전도  
천초병들의 가슴가슴마다에  
더운 피를 끓이며 새겨져있어라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일단 결심하면 기어이 하고야마는  
나라

인류의 화권을  
피를 즐기는 인간살육자들을  
따라가며 끌라가며  
씨도 없이 물어버릴  
백도 없이 태워버릴  
재도 없이 날려보낼 불

세계전략구도의 변화를 일으킨  
거대한 지각변동과도 같은  
사변중의 특대사변으로  
부러움과 칭송의 다발을 엮고  
격찬의 전파를 날리었거늘

정녕 그것은  
사랑의 불  
중요의 불  
승리의 불!

그렇다  
사랑으로 이기고  
정의로 불의를 매장하기에  
피에 주린 야수들에게 공포를 주고  
우리 민족과 벗들엔 신심과 미래를  
주는 불  
하기에 그 위력앞에 적들은 떨지만  
인류는 환호와 격찬을 보내거니

천리전선의 고지와 고지  
방수포를 벗긴 포신들엔  
민족의 분노와 멸적의 기상이 만장약  
되어  
불을 뿜는 그 시각을 기다리노라

우리의 높은 존엄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는  
결사의 신념을 담아  
자위의 의지를 담아  
또다시 세상을 놀래운  
정의의 핵폭발을

세상에 불은 많아도  
백두산의 불보다 강한 불  
이 행성우에  
그 어데 있으랴

이 어찌 참을수 있단 말이나  
만민의 찬탄을 받던  
조선의 위성발사를 두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조작해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포악한  
죄행을

지금도 우리 귀전에 생생히 울려  
오노라  
-불을 지르라  
원수의 머리에 불을 지르라!  
항일의 그날 보천부의 밤하늘에  
울리던  
강철의 명장 우리 수령님의 추상같은  
선언이

오, 바로 이것이  
사랑과 증오로 강한  
우리 식 불의 의미  
백두산불의 철학이거니

지하막장에서  
착암기를 총창삼아 틀어잡고  
두주먹을 부르려는 탄부들  
불타는 전기로앞에서  
쇠물과 함께 증오를 끓이는 용해  
공들

지켜보라 력사여  
《제재》의 끝이 더 무서운지  
보복성전의 끝이 더 무서운지  
어느쪽이 더 무서운가를

우리의 불속엔  
쌓아두고도 풀지 못한  
백년원한이 있고  
천백배의 대가를 받아내야 할  
피의 결산이 있다

세계여 보라  
이 횡포한 특대형의 도발로  
정세의 위험도는 한계를 넘어서는가  
위협당하는 평화우에  
전쟁전야의 비상시국이 펼쳐졌거니

오늘도 우리 가슴 세차게 격동시키  
노라  
-침략의 불을 즐기는자들은  
정의의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반미성전의 나날 천하를 울리신  
백두령장 우리 장군님의 그 음성이

우리는 백두산의 이 불로  
이 땅에 물러오는 역풍을 흘날려  
버리노라  
우리 조국을 질식시키려는 《제재  
결의》를  
이 불로 단호히 태워버리노라

눈덮인 대지우에 봄을 앞당겨  
부르며  
결전의 총탄인양 씨앗을 키우는  
농장원들  
교정에서 탐구의 열정을 태우며  
불을 총검삼아 복수를 다지는 열혈의  
젊은이들...

원수들의 《제재》소동과 봉쇄로  
경제강국건설에 난관이 있다 하라  
실사 고난이 백천가지 겹쌓인다  
하라

바로 이것이  
미제원수와의 전면대결전에 나선  
분노로 이글거리는  
우리 식 불의 위력이노라

분노의 강설을 뿌리라 하늘이여  
격노의 갈기를 일으키라 바다여  
백두성악이 드르릉 노호하노라  
백두천지가 부글부글 용암을 뿜노라

지금 우리 심장에 우뢰마냥 메아리쳐  
오노라  
전쟁접경의 위험천만한 초긴장의  
그날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무자비한 화력타격으로  
원수들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라!

정의에 불타는 이 불의 열풍으로  
지구상의 그 모든 불의를 짓부셔  
버리노라  
누리에 불는 이 불의 화염으로  
인류들 괴롭히는 그 모든 악을 매장  
해버리노라

이 땅에서  
그 누구를 따로 찾지 말라  
은 나라 천만군민이  
백두의 불을 안고  
원수격멸의 용암으로  
심장을 끓이고있거늘

하건만 세계는 보게 되리라  
역경앞에서는 자신의 높은 사명을  
백배천배로 가다듬는 우리의  
기질을  
고난을 강자의 신념으로, 웃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렇다  
인류의 량심앞에 우리 선언하노라  
지구상에 살륙의 핵무기가 있는 한  
자위의 핵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리

민족의 존엄을 지키느냐  
나라의 자주권을 빼앗기느냐  
이 첨예한 갈림길에서  
대결이나 전쟁이나  
이 엄숙한 선택앞에서  
세계의 초점 모아지는 조선

일당백장병들에게 근엄하게 내리신  
백두산장군 우리 원수님의 명령이  
  
그렇다, 백두산대국의 군민  
우리에게 있다  
경에하는 원수님 주신  
멸적의 불이 있다  
승리의 불이 있다  
백두산의 불이 있다!

2  
우리는 똑똑히 알았노라  
선군조선의 우주정복에  
바빠맞은 적대세력들의 숨가쁜 발광  
앞에서  
민을것은 오로지 자기자신  
자기 힘으로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진리중의 진리들

하늘에서는 위성이 날고  
땅속에서는 불의 퇴성을 터치는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앞에  
어떤자 감히 맞설수 있단 말인가

어렵도 없다  
우리에게서 자주권을 뺏으려는자  
들아  
자주권 그것은  
목숨바쳐 지켜야 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심장  
우리의 존엄

세계의 정의앞에 단호히 선언하노라  
이 세상 어디에 인류와 민족의 생존  
을 위협하는  
단 하나의 핵무기라도 남아있다면  
의로운 핵을 우리 순간도 놓지  
않으리

사람들이여 보는가  
백두산장군이신 우리의 원수님  
력사의 광풍을 맞받아 나서시여라  
1월의 엄혹한 그날에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결사용위로 강하고  
신념으로 강하고  
일심단결로 강하고

내 여기서 잠시  
준엄한 2월의 그날에 서보노라  
만민의 눈길이 모여오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연단  
격변하는 시대의 중심에 서시여  
천만군민을 전면대결전으로 부르  
시며

기억하라  
백두산대국의 선언을  
아메리카제국을 전몰속에 몰아넣은  
멸적의 선언을

오, 절대로 안된다  
우리가 선군으로 지켜온  
저 푸른 하늘이 있고  
우리가 총대로 다져온  
무적의 군력이 있는 한  
아, 백두산이 가슴속에 솟아있는 한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하리

우리의 불속엔  
자주와 평화의 세계를 얻는 승리의  
아침

-우리에게도 핵이 있다  
핵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력사의 반동들이  
제아무리 《제재》를 떠들고  
전쟁소동으로 위협과 압력을 가해도  
우리의 위성들은 우주를 향해

그것은 위대한 김정원시대  
빛나는  
영원한 태양의 나라 선군조선에서  
기어이, 기어이 밝아오리라!

그렇다  
핵을 가지고 인류의 생명을 회롱



#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춘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자

##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군민련환대회 진행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군민련환대회가 14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드넓은 김일성광장은 선군혁명의 역사에 아로새겨질 또 하나의 특대사변을 맞이한 자주적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여온 10만여명의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로 차넘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문경덕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가 대회 회의를 선언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대회에서는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을 축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연설하였다.

이러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유동현 조선인민군 장병이,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계급을 대표하여 현상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리명길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과학자들을 대

표하여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공화국의 평화적 위성발사권리를 관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제재》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뜻깊은 2월을 선군조선의 또 하나의 커다란 승리로 빛나게 장식한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이번 핵시험은 우리의 위성발사물 계기로 그 무슨 《고강도제재》, 《신제타격》을 운운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처한 단호하고도 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며 그 어떤 타격수단도 미움만 먹으면 팡팡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기술강국, 군사강국의 일대 위력시위로 된다고 말하였다.

오만무례한 일수들의 그 어떤 《제재》소동도 군사적우세도 우주를 정복하고 핵보유국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백두산대국을 털끝만치도 건드릴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핵시험의 성공은 김일성, 김정일장군의 존엄과 기상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가시는 회세의 정치가이시며 백두의

선군명장이신 경에 하는 길정은동지의 비범한 결단과 무비의 담력에 의하여 마련된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하였다.

포악무도한 적대세력들과는 오직 불타르기로 결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대응방식, 대결본래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휘날리며 공화

국창건 65周年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周年이 되는 올해를 승리의 대추적으로 빛내이고 이 땅우에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라 고 강조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 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본사기자

정말 격동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은 세상을 들었다놓은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에 이어 또다시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은 한다면 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야 마는 우리 조국의 불굴의 기상과 불패의 위력을 다시금 만천하에 과시할 일대사변으로 된다.

지난해 지구를 박차고 우주를 향해 치솟아오르는 《광명성-3》호 2호기를 보면서 우리의 국력이 하늘에 닿았다고 기쁨의 환호를 터 치었던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은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결코 《장거리미사일발사》나, 《위협》이니 하고 북대소동을 피우던 끝에 유엔안보리사회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냈다. 당당한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를 엄중히 침해하는 이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는 우리 천만국민의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자아냈다. 결국 이번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은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대

공조치의 일환이다.

우리의 생명이고 존엄인 자주주의제도를 감히 어찌보려는자들과는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선택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을 따라 끝까지, 추호의 양보도 없이 역세계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경공업성 부상 한정수



지난 12일 공화국은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적대시입살정책에 대처한 단호한 자위적조치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들에게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며 그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진하고있다.

공화국이 성공적으로 진행한 이번 제3차 지하핵시험은 적대세력들과의 투쟁에서 한치의 양보와 추호의 타협도 모르는 공화국의 단호한 립장과 선군조선의 본래를 과시하고 한다면 무조건 하야야하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결단적대배정, 무비의 담력과 실천력을 만방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공화국의 성공적인 지하핵시험은 합법적인 평화적위성발사권리를 관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

한 실제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공화국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범죄시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해낸것이아말로 국제법의 관폭한 유린이며 이종기준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미국이 어떻게 해서나 공화국을 압살하려 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도구로 리용되고있다는것이 명백해진 이상 공화국은 더이상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핵무

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격이다.

자기가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지키고 목숨보다 더 귀중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산악 같이 일떠선 공화국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미국이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지만 공화국의 위성은 우주를 날고 적대세력들을 전멸케 하는 지하핵시험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있다.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새로운 압력과 《제재》로 도전해나선다면 더욱 강도높은 2차, 3차의 연속적인 대응조치를 취해나갈것이라는것을 명백히 선포하였다.

미국이 끝끝내 적대적으로 나오며 충돌의 길을 택하는 경우 세계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정의와 부정의간의 판가리대결전에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내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맞이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김응철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김일성총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명실공히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김일성총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명실공히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김일성총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명실공히

###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대응조치

남강도적인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하였다.

유엔이 생겨 지금까지 위성발사나 핵시험은 수없이 진행되었지만 그것을 하면 안된다는 안전보장리사회결의는 있어본적이 없다.

핵시험과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한것은 물론 본토와 남조선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방대한 핵무력을 배비해놓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공란하는 미국이 유독 주권국가인 공화국의 정당당한 자위권행사와 평화적과학기술활동을 문제시하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조작

력을 배비해놓고 함시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핵공갈책동에 공화국이 핵으로 맞서는것은 당연한 자위권행사로서 지극히 옹당한것이다.

공화국이 핵시험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있다. 공화국의 이번의 핵시험은 최대한의 자체력을 발휘한 1차적인 대응조치이다.

지금 미국은 주권국가의 평화적인 위성발사권리를 관폭하게 침해한 자들의 죄과를 인정하고 사회할 대신 이번에는 선박검색이니, 해상봉쇄니 뭐니 때들면서 소란을 피우

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격이다.

자기가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지키고 목숨보다 더 귀중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산악 같이 일떠선 공화국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미국이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지만 공화국의 위성은 우주를 날고 적대세력들을 전멸케 하는 지하핵시험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있다.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새로운 압력과 《제재》로 도전해나선다면 더욱 강도높은 2차, 3차의 연속적인 대응조치를 취해나갈것이라는것을 명백히 선포하였다.

미국이 끝끝내 적대적으로 나오며 충돌의 길을 택하는 경우 세계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정의와 부정의간의 판가리대결전에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내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맞이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김응철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김일성총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명실공히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김일성총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명실공히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김일성총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명실공히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김일성총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명실공히

### 군사강국의 위용을 과시

## 《조선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경고》

미국이 대조선적대행위에 대처하여 제3차 핵시험을 진행한것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12월과 13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이 담화에서 적대세력들이 떠드는 선박검색이요, 해상봉쇄요 하는것들은 곧 전쟁행위

로 간주될것이며 그 본지들에 대한 조선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유발시키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변인은 핵시험이후 미국이 끝까지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보다 강도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 조치를 취해나가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조작해낸

것이야말로 국제법의 위반이며 이종기준의 극치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성발사권리에 대한 침해는 곧 조선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서 절대로 용납 못할 엄중한 적대행위라고 하면서 이번 핵시험은 정당당한 자위적조치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란의 이르나통신, 이스나통신, 파르스통신, 메호르통신, 프레스TV방송, 싱가포르의 TV 《아시아소식통로》, 말레이시아의 베르나타통신과 신문들인 《우두산 말레이시아》, 《스타》, TV방송, 일본의 NHK방송, 인디아의 신문 《타임스 오피 인디아》, NDTV방송, 튀르키예신문 《자만》, 벨라루세공산주의근로자당 인 라데트호페지도 《조선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고 미국에 경고》 등의 제목을 달고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김일성총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명실공히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김일성총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명실공히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김일성총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명실공히

지하핵시험성공에 대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가 설명점을 뜻깊게 보낸 온 나라를 더 큰 격정으로 끓여버리게 하였다.

하루종일 환율이 내린 2월 12일 오후, 평양의 거리마다에 활기에 넘친 사람들의 물결이 흐르는 속에서 귀여운 딸애의 손뭉을 잡고 막 달리다싶이하는 젊은 군인부부의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알고보니 그들은 친정집부모들

올려온 지하핵시험성공소식은 설명점을 더욱 뜻깊게 합니다.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얻은것만 같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넘칩니다. 이번 핵시험은 자기의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불굴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쳐냈습니다. 정말 통쾌합니다.

이바지하겠다고 자부심에 넘쳐 이야기하는것입니다.

머무알같은 눈을 반짝이며 어린 총각애가 어른들틈을 비집고요. 리케첼로인의 만발 리영아의 아들인 서홍소학교 1학년 라진명(8살)이 온 가정이 빙 둘러앉은 복판에 착 나섰다.

《나는 매일 5점만 맞을 래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위성을 쏘올리는 훌륭한 과학자가 될래요.》

인민방장인 이 집 주부 김명숙(62살)은 온 동네가 설명절날 류타른 한 회와 감으로 흥성거리고있다고 하였다.

《우리 너네들이 모여앉아 웃음을 즐기다가 보도를 들었어요. 너무 감격해서 모두가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글썽했답니다. 우리 자식들이 강성국가건설에 한몫하게 뒤바라지를 더 잘 하자고 서로서로 고무하였습시다.》

더 좋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일들의 열의가 우리의 마음을 후뭉게 해주었다.

본사기자 박단희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김일성총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명실공히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김일성총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명실공히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김일성총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명실공히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김일성총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명실공히

### 지하핵시험의 성공소식을 듣고

나도 뚫어본 기계연선에서 군사부문을 한 제대군인인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기절초풍해서 벌벌 떠는 모습이 눈에 선히 보입니다.》라고 흥분되어 말하는것이였다.

김영국은 《작들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를 동원하여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하여 《제재》요 뭐요 하고 떠들며 하지만 우리 조선은 당당한 지하핵시험으로 맞받아갈 것입니다. 노래에도 있지만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조선은 한다면 한다는것을

며 승리가 멀지 않았다는것을 확신하게 된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새해벽두부터 혼련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우리 선수단의 남녀추진수들이 핵시험성공소식에 사기충천하여 경기들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것이라고, 온 세상에 조선사람의 본래를 보여줄것이라고, 우리 율미도선수단의 녀자추진수 세계적인 강립이 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있는데 추추과학기술연구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체육강국을 건설하는데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김일성총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명실공히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김일성총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명실공히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김일성총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명실공히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김일성총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명실공히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김일성총합대학의 전체 교직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명실공히